

정답

1.① 2.④ 3.④ 4.④ 5.③ 6.② 7.① 8.④ 9.④ 10.③
 11.⑤ 12.⑤ 13.③ 14.⑤ 15.⑤ 16.④ 17.② 18.⑤ 19.③ 20.①
 21.① 22.① 23.③ 24.⑤ 25.② 26.① 27.② 28.⑤ 29.① 30.①
 31.② 32.② 33.④ 34.③ 35.⑤ 36.① 37.④ 38.① 39.④ 40.①
 41.② 42.⑤ 43.③ 44.② 45.③ 46.④ 47.③ 48.⑤ 49.② 50.②
 51.④ 52.④ 53.⑤ 54.① 55.④ 56.② 57.② 58.③ 59.③ 60.⑤

1.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할머니와 손녀딸이 자신들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한 손녀딸을 생각해서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정성껏 도시락을 마련하여 학교까지의 먼 거리를 힘겹게 다녀왔다. 그런데 그 시간에 손녀딸은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해서 집까지 와서는 할머니의 식사를 차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써 줌’의 의미를 지닌 ‘배려하는’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공경은 ‘삼가고 존경함’의 의미이므로 이야기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2. 사실적 사고(자료에의 활용)

정답해설 : 가을에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표층수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물이 최대 밀도가 되는 4도에 가까워지면 위의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아래쪽의 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전도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④에서 4도로의 온도 하강에 따른 물의 전도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여름 호수의 그림이다. ②봄 호수의 그림이다. ③겨울 호수의 그림이다.

3.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 육필의 글쓰기에서 디지털 글쓰기로 넘어갔다가 점차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과 단점으로 화제가 확장되고 있다. 여학생이 먼저 토론 주제 거리로 ‘육필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 글쓰기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학생과 대화하면서 대화의 중심은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과 단점으로 넘어간 것이다. 여학생이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을 지적하자 남학생은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것이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그걸로 같이 내자고 했기에 이들의 과제물 제목으로는 ‘디지털 글쓰기의 장단점’이 가장 적절하다.

4. 비판적 사고(화자의 관점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강연자는 ‘마징가 제트’를 예로 들면서 ‘만화영화의 노랫말이 사회적 상황이나 인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표현하는가’라는 핵심 화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캔디’라는 한국 노랫말과 일본 노랫말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의 원작에서는 말괄량이 소녀가 나오는 밝은 분위기였던 노래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성숙한 소녀가 나오는 슬픈 분위기의 노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이러한 이유가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 환경과 의식 구조가 노랫말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강연의 핵심에 대한 판단으로는 ‘노랫말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대비’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①이 강연의 핵심은 일본의 영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즉, 수용과정에서의 변화 원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일본의 밝은 노래가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는 슬프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5. 추론적 사고(화자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드라마가 광재우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영웅의 ‘개인적인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었다며 자신의 작품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러한 개인적 고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드라마에서 초점을 둔 것으로 작가는 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6. 비판적 사고(대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정답해설 : 진행자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보다 작가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있고, 작가의 대답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있다. 대화에서 관점의 차이는 작가와 연출가의 차이만이 드러날 뿐이다.

오답피하기 : ①진행자는 드라마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묻고 있으며, 작가가 문제점을 제시하자 작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또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며 청취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고 있다. ③,④드라마 연출자는 광재우라는 인물의 영웅적 면모에 초점을 두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후, 자신은 이 작품에서 한 영웅의 개인적 고뇌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하였다고 의도를 밝히고 있다. ⑤진행자가 광재우 장군이 어떤 분이었는지 소개해 달라는 말에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7. 창의적 사고(연상된 주제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위의 그림에서는 ‘깨끗함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고, 부정 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왼쪽 그림에서는 ‘정정당당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썩은 이를 뽑아 달라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잘못된 것은 근본적 원인의 제거’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만든 공익 광고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②경쟁을 연상할 수 있는 자료는 왼쪽 자료일 뿐이며, 이 자료는 경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아니다. ③타인에 대한 관심은 어떤 자료에서도 연상하기가 힘들다. ④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⑤위의 자료만을 활용한 것이다.

8. 비판적 사고(개요의 수정 방안)

정답해설 :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내용은 ‘Ⅱ-2’보다는 ‘Ⅱ-3-가’인 ‘에너지 자원 확보’로 옮겨야 자연스럽다.

오답피하기 : ①‘슬기롭게’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제를 수정하였기에 적절하다. ②‘고유가 시대의 수출 전략’이라는 내용이 본론의 첫째 항목으로 바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에 삭제하거나 뒤로 이동해야 한다. ③하위 항목의 내용인 ‘에너지 자원 확보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관련 극복 대책’은 적절하다. ⑤실천 촉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기에 적절한 수정이다.

9. 비판적 사고(쓰기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글쓰기의 계획은 주제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주제에서 행동의 주체는 ‘정부와 관련 단체’인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체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하기’나 ‘규칙적인 운동 습관 갖기’의 주체는 청소년 당사자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10.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른 글쓰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상대방의 의견은 낙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시설에 낙서하는 것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글을 찾아야 한다. ③은 첫째 문장에서 ‘동의한다’며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로 시작하여 반론을 시작하고, ‘공공의 윤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셋째 문장에서 낙서를 ‘얼굴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반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②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인정이 없이 반론만 드러나고 있다. ④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상대 의견에 대한 반론만 드러났을 뿐이다.

11.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라 바꾸어 쓰기)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은 힘자랑만 하는 참나무가 결국 바람에 부러지고 말았지만, 약하다고 놀림 받았던 갈대는 바람을 이겨냈다는 것으로 참나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갈대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화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참나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주제를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주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보기는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서술자가 갈대로 바뀐다면 모든 것은 갈대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②보기에서는 갈대의 유연성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즉, 갈대를 외적 힘에 쉽게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로, 참나무를 어떤 외적 시련에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다가 꺾이고 마는 의지적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③우화는 결국 인간 세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이를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④보기에서는 참나무와 갈대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둘의 대화를 직접 보여 주고 구체적 장면 묘사를 한다면 갈등이 더 첨예하게 드러나고 생생함이 느껴질 것이다.

12. 고쳐 쓰기(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의 ‘물론’은 ‘그런데도’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끼다’와 ‘들다’의 두 단어가 결합될 때, ‘-어’라는 어미가 연결시켜 주고 있기에 ‘끼어들다’가 되어야 한다. ‘끼여들다’는 피동형으로 ‘끼이어들다’가 축약된 것이다. ②‘틀림없이’라는 부사어는 ‘-해야만 한다’ 또는 ‘-이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들어간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호응이 된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므로 호응이 되지 않기에 삭제해야 한다. ③‘미워서’를 쓰려면 ‘너를’이 아니라 ‘너가’를 앞에 제시해야 한다. ④‘풀려지도록’에는 ‘리’와 ‘-어지’의 피동 표현이 두 번 쓰였기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13. 어휘, 어법(문장 구조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또 하나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안은 문장들이다. 결국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전체에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안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ㄱ에서 전체 문장의 주어는 ‘담장’이며 서술어는 ‘씻었다’이다. 밑줄 친 부분 또한 하나의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땀’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서술어로 ‘흐르는’이다.

오답피하기 : ①밑줄 친 안긴 문장은 하나의 문장 구조를 이루면서도 커다란 문장

내에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②ㄱ의 밑줄 친 부분은 ‘땀’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기에 관형어의 구실을 한다. ㄴ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을’이 붙어 ‘모르는’의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으며,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가 붙어 ‘잘난 척을 해’라는 행동을 수식하여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④ㄴ에서 ‘그가 착한’은 주어(그)와 서술어(착하다)를 가지면서 ‘사람’을 수식하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생략된 주어(사람들)와 서술어(모른다)를 가진 채 ‘사람’을 수식하고 있기에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 ⑤문장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으면 문장이 길어지는 것이기에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14. 어휘, 어법(한자어의 의미와 용법의 파악)

정답해설 : 같은 한자가 들어 있어 의미상의 공통점은 있으나 분명한 의미 구별이 있는 한자어들이다. ‘식별 : 알아서 구별함’, ‘분별 : 서로 다른 것을 따로따로 가름 또는 돌아가는 형편을 헤아려서 앎’

오답피하기 : ①‘금방 : 이제 곧’의 의미로 미래 시제를, ‘방금 : 바로 이제’의 의미로 과거 시제를 지닌다. ②‘구조 : 구하여 줌’, ‘구원 : 도와 건져 줌 또는 인류를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 냄’ ③‘당황 : 놀라거나 다급하여 정신이 어리둥절함(어쩔 줄을 모름)’, ‘황당 : 거칠고 허황하다’ ④‘변환 : 달라져서 바뀜’, ‘변천 : 변하여 바뀜’

[15-19]현대시

작품 해설

(가) 이용악, ‘낡은집’ : 이 시는 일제강점기 고통 받는 식민지 백성들의 삶을 털보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채 담담하게 전달만 하고 있다.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낡은 집’은 일제의 핍박으로 몰락한 농촌의 현실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 유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털보네 가족이 살다 떠난 낡은 집은 어느 한 가족만의 집이 아닌 백성들의 집으로 확대되면서,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온 하층민 계급의 빼앗긴 삶과 가난, 그리고 한과 분노를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은 서사적이며, 객관적인 현실 묘사를 통해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이루었다.

주제 : 일제 강점기의 피폐한 삶 고발

(나) 박재구, ‘은행나무’ : 은행나무라는 자연물을 인격화시키고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지금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절망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기에 화자는 여기에서 현실을 이

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배우고 있다. 자연물이 인간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은행나무에서 배우는 의연한 삶의 모습

15.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 현재는 털보네 가족이 떠나고 낡은 집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화자는 이 낡은 집에 얹힌 털보네 가족의 사연을 시간 순서대로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화자는 현재 은행나무를 보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현실에 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제를 보아도 현재형의 시제로 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가)에서 화자가 살고 있는 곳, 즉 털보네가 살았던 곳은 시골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털보네의 외양간, 노루 멧돼지 쪽제비가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마을, 싸리말 동무, 저릐등, 방앗간 등을 통해 향토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②(가)는 털보네가 떠난 후 그루터기만 남아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 낡은 집에 대한 쓸쓸한 묘사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는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고 현재의 절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라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나)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때로는 세상을 -- 들어선다 해도’에서 짐작할 수 있으나 그 현실이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에서는 아들을 낳고도 이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과 늘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결국은 야반도주(夜半逃走)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④(가)는 털보네가 살았던 황폐해진 ‘낡은 집’에 대한 서술에서 시상이 시작되고 있고, (나)는 은행나무를 통해 시상이 확장되고 있다.

16.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시어는 주어진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가)에서 ‘찾길’은 이렇게 볼 때, 부정적인 어감을 띠게 된다고 했다. 털보네가 결국 고향마저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식민지하의 시대 현실을 떠올려야 하고, 그렇다면 ‘찾길’은 단순히 도로로서의 의미가 아닌 식민지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제가 의도적으로 건설한 산물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나)에서 ‘도롱이집’은 두 번 제시되고 있다. 처음에 제시된 도롱이집은 실제의 도롱이집으로 이해하든지, 은행나무잎의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든지 객관적인 의미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에 제시된 ‘도롱이집’은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으로 가진 것이며, ‘불법’으로 들어선다고 했기에 부정적인 어감이 분명해지고 있다.

17.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시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가 창작된 연도를 밝히고 작가의 실제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가)의 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에 시인의 삶(작가론)이나 당대의 시대적 배경(반영론)은 작품에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에 시적 화자는 털보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친구이다. 즉,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에서 ‘애비’는 털보 아들의 애비 즉 털보인 것이다. 또한 시에서 털보는 죽지 않고 고향을 떠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작가의 아버지가 객사했다는 사실을 연상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시에서 화자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피하기 : ①이 시를 읽고 털보네가 왜 고향을 떠났을까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추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38년에 이 시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털보네가 떠난 원인이 일제의 식민지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작가는 실제 가난한 삶을 살았기에 털보네의 가난한 삶을 토대로 한 작품이 나온 것이다. ④작가가 실제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기 전까지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작품에 제시된 털보네 삶이다. ⑤‘싸리말, 짓두광주리, 저릅등, 글거리’는 함경도 방언인데, 실제 작가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것에서 그의 함경도에서의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창의적 사고(다른 장르로의 변용)

정답해설 : 시를 희곡으로 변용하는 것이지만 시에서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시에서는 장르적 특성상 상황과 행동만 제시되었을 뿐이지만 희곡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 심리를 직접 보여 주는 것이 다르다. 털보네가 셋째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털보 또한 소주에 취해 눈이 붉어 있다. 이는 자식 하나 제대로 책임질 수 없는 가난한 형편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있는 저릅등은 털보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털보가 ㉠에서처럼 미래를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작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9. 비판적 사고(시구의 이해 및 감상)

정답해설 : ‘자기 뭇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의 행동 주체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구’이다. 또한 이들은 ‘불법’으로 이 땅 위에 들어서는 자들이기에 부정적인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은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정적 행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이밖에도 은행나무 잎의 비유적 표현으로는 ‘노오란 우산깃, 아름다운 연서,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이 있다. ②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 있지만 이러

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며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앞에 나온 노오란 우산짓은 단순히 아름다운 낭만적 대상인 은행나무 잎만을 의미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노오란 우산짓은 화자에게 현실을 이겨낼 힘과 미래에의 희망을 주는 대상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⑤‘희망’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불타는 형상’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20-23] 고전소설, 최고운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황금 돼지 이야기, 아기 장수 설화, 최치원의 일대기’등 여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영웅의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신라 말기의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가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해 중국 황제와 학사들을 탐복시키고 두려움과 열등감에서 나온 그들의 괴롭힘에 당당히 맞선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부심과 문화적 우월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임진왜란 때 명의 지나친 간섭과 횡포에 대한 민중의 울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 최고운의 일대기를 통한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20. 사실적 사고(사건의 전개 과정 이해)

정답해설 : 최치원이 중국으로 떠날 때 50자 되는 모자를 마련하여 떠났고, 쥔문을 들어설 때 대국의 쥔문에 ‘모자’가 닿는다면 한동안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쥔문을 부수게 하였다. 또한 중국 황제는 악사들을 매복하여 최치원의 마음을 어지럽히려 했으나 치원이 청색과 흰색의 부적을 던져 제압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구덩이에는 ‘구렁이’가 가득했다고 했다. 이어서 황제가 준비한 코끼리를 황색 부적으로 제압했는데 그 부적이 ‘누런 벌’로 변해서 코끼리의 입을 막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학사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으나 치원이 이에 수없이 많은 ‘시’를 지어 줌으로써 이를 해결하였다.

21. 추론적 사고(사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황제가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최치원을 불러 죽이려고 했으나, 최치원이 지혜와 재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국이라고 업신여기며 부당하게 억압하는 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소국의 자존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치원의 행동에서 영웅적인 면모는 보이나 이것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2. 비판적 사고(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자는 중국을 ‘대국’이라 칭함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듯하지만, 대국의 쥔문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는

결국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기의 시에서도 1행과 2행에서는 상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3행에서 ‘그 공이 이미 높다’고 했고, 4행에서 만족함을 알고 그만 두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결코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인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④보기의 시나 ㉠에서 화자의 영웅적인 기개는 엿볼 수 있으나 ‘상대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지는 않다. 우회적으로 조롱한다는 것은 꾸짖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꾸짖는 것이지만, 준엄하게는 매우 엄격하게 꾸짖는 것이기 때문이다.

23. 비판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과 ㉡는 동일한 어휘지만 어휘가 담고 있는 문맥적 의미는 다르다. 즉, ㉠에서의 장막은 최치원이 오는 길에 방해를 주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이는 최치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하지만 최치원이 모든 장애물들을 비범한 능력으로 해결해 나오자 결국 ㉡의 장막을 쳤다. 그리고는 황제가 먹는 음식을 올리게 하고, 거처도 같게 했다. 이는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는 최치원을 위협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기에 인정할 수 있으나 ㉢는 용서와는 거리가 멀다. 용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리는 관용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황제는 최치원을 인정하고 예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4-27] 과학, ‘진화에 따른 인간 호흡기의 불리한 구조’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의 호흡 기관이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을 진화 과정에서 찾아 해명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몸집이 커지면서 호흡기가 생기게 되고 다시 허파가 생기는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화의 과정을 시간 순에 의한 서술과 인과 관계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다.

주제 : 불합리한 인간 호흡기의 진화론적 규명

24.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은 인간의 호흡기가 왜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해명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구조의 원인을 진화의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이상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그때 그때 변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로 선택된 것이 현재 인간의 호흡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글쓴이가 다룬 핵심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 ㉢글의 시작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핵

심 화제 중의 하나는 진화론적 해명이기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④인간의 호흡기는 진화의 결과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구조를 띠고 있기에 이를 해소시킬 근본적인 방안은 없다.

25. 사실적 사고(글의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2문단에서는 척추 동물의 조상형 동물에서 소화계가 호흡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체의 구조였기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몸집이 커지면서 호흡 기능의 하나인 ‘아가미’가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호흡기의 일부가 변형하여 ‘허파’로 발달되었으며,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는 콧구멍에서 입천장을 뚫고 들어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폐어 단계의 호흡기 구조라고 했다. 그림에서 이러한 호흡계를 찾는다면, ㉠가 바로 맨 나중에 생겨난 ‘공기 통로’이며, ㉡는 호흡기인 ‘아가미’, ㉢는 아가미가 변형되어 생긴 ‘허파’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구조가 바로 폐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흡계 구조이기는 하나, 폐어 이후에 공기 통로가 진화된 구조이다. ㉤는 위이기에 호흡계 구조가 아니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타협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바로 인간의 호흡계가 이러한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다. 법률이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개정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타협적인 구조에 의한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숙려된 선수로 되는 것이기에 이상적인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단계를 밟아서 차츰차츰 좋은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27.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출발점은 인간의 호흡계가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명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호흡계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글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1문단에서 인간과 달리 곤충이나 연체 동물 같은 무척추동물은 음식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없다고 했다. ㉢4문단의 첫 문장에서 진화는 반드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문단에서 척추동물의 조상형 동물은 처음에 체와 같은 구조만 있으면 되기에 별도의 호흡계가 필요하지 않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호흡계가 생겨났다고 했다. ㉤4문단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인간의 호흡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는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28-32] 사회, ‘선거에서 신문의 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선거 과정에서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신문이 비록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것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원론적인 차원과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예시, 화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주제 : 선거 과정에서의 신문의 역할에 대한 고찰

28.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신문은 후보의 정치적 신념, 소속 정당, 정책을 분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근접한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심’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만약 유권자의 표심까지 반영한다면 모든 신문이 지지하는 후보는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3문단에서 보강 효과 이론은 미디어 메시지가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태도나 의견을 보강하는 것이라 했다. ②3문단에서 선별 효과 이론은 개인이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③5문단에서 신문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④2문단에서 신문이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195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는 신문이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예시가 나왔다.

29. 비판적 사고(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례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신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30. 사실적 사고(구체적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신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란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문단 ㉠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후보 지지 선언의 영향력’을 제기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언론의 권력 강화’, ‘후보에 대한 독자의 판단 선점’,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글쓴이는 이러한 행동은 신중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했고, 독자들 역시 지지 선언

에 숨어 있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세력이 후보 지지 선언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었지만, 신문을 지배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1. 창의적 사고(중심 문제의 현실 적용)

정답해설 : A에서 제시된 두 이론은 ‘선별 효과 이론’과 ‘보강 효과 이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를 적용할 수 없는 예를 찾아야 한다. 두 이론의 핵심은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든지, 이것이 개인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②에서는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행동에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기에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③,④는 보강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미디어가 개인의 기존 태도나 의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는 선별 효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디어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32. 어휘, 어법(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담보(擔保)’는 ‘말아서 보증함, 또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빚 준 사람이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제공하는 보장’의 의미를 지닌다.

[33-36] 기술, ‘기술 혁신의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기술 발전은 대체로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의 일부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판유리 제조 공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기술 혁신의 과정이 비록 험난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자만이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기술 혁신 과정의 핵심은 바로 ㉠과 같이 여러 공정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성은 향상되고, 숙련공에 의존도는 낮아지기에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하지만 ④에 제시된 사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여러 공정이 하나의 공정으로 압축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해 버리는 것이기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오답피하기 : ①진공 청소기는 ‘쓸고, 닦는’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②스팀 다리미는 ‘뿌리고 다리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③콤바인은 ‘베고 탈곡하고 닦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⑤자동 제빵기는 ‘반죽, 발효, 굽는’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

34. 사실적 사고(지시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에서 말한 이 공정이란 플로트 공정이다. 이 공정이 기술 혁신을 가져온 것은 ‘원료 배합 및 용융, 성형, 서랭’의 세 단계를 플로트 공정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의 ‘탱크가마’에서 유리의 ‘원료 배합 및 용융’이 이루어지며, ㉢의 통로를 빠져 나온 녹은 유리는 ㉣의 ‘주석 욕탕’ 위를 지나면서 녹은 판유리 모양으로 ‘성형’되고, ㉤의 롤러에 의해 ㉡의 서랭 터널 속에서 식으며 절단되기 전의 상태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석 욕탕’은 ㉣라 할 수 있다.

35. 추론적 사고(내용의 맥락 추리)

정답해설 :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결국은 성공하였다.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 쉽게 수익성을 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A의 내용만 가지고 필킹턴 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것이란 추리를 할 수는 없다. 많은 회사들이 매달렸지만 필킹턴 사가 제일 먼저 기술 혁신에 성공했다는 정보가 제시된다면 ㉤와 같은 추리가 가능할 것이다.

오답피하기 :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을 도입한 후 12년이 지나서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보아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비가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랬기에 곧바로 공정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필킹턴 사는 플로트 공정을 즉각 활용했다고 했다. ㉢, ㉣필킹턴 사가 공정 개발비를 회수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 알았다면 기술 혁신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36. 어휘, 어법(관용어구에의 적용)

정답해설 :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다는 것은 오늘날에 교훈이 될 만한 것을 과거에서 얻기 위함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이기에 이러한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다.

오답피하기 : ㉡다다익선(多多益善)의 의미는 ‘많을수록 더욱 좋다’이다.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의미는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일거양득(一舉兩得)의 의미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의미는 ‘같은 침대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것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아주 딴 생각을 함’이다.

[37-43] 수필, 고전시가 복합

작품해설

(가) 조지훈, ‘멋 설’ : 작가는 가을을 맞아 ‘멋’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연상하고 있다. 멋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규정들, 삶을 번뇌와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작가는 비록 소박한 삶이

지만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이라 했다. 이러한 내용을 고풍스러운 느낌이 드는 어휘와 어투를 사용하고, 영탄적 어조와 대구, 설의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이황, ‘도산십이곡’ : 이황이 안동에 물러가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이 시조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흠뻑 취해 사는 자연 귀의 생활(전6곡)과 후진 양성을 위한 강학과 사색에 침잠하는 학문 생활(후6곡)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퇴계는 한시보다는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시조가 더 요긴하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하면, 감정을 유발하여 서로 통하게 하는 효과가 크며, 노래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유익한 관계가 된다.’고 말한다. 시조의 교훈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37.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작가는 ‘멋’을 중심으로 생각을 펼치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배우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며 학문을 수양하고 인격을 수양하며 사는 것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체험에 대한 사실적 전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②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에서 세상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⑤규범적 가치라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38. 창의적 사고(작가의 관점 적용)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인격 수양(학문 수양)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화자가 (가)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찾는 것이다. (가)에서 작가는 가을을 맞아 멋을 중심으로 삶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연상하고 있다. 멋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규정들, 삶을 번뇌와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대해 작가는 비록 소박한 삶이지만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이라 했다. 결국 (나)의 화자나 (가)의 작가나 ‘욕심 없이 자족하며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 칸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치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피하기 : ②(나)의 화자나 (가)의 작가는 인간의 이욕에 매여 사는 삶에 대해 비판적이다. ③(나)의 화자는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④(가)의 작가는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진다고 하며 구태여 복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⑤(가)에서 사람들이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작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드러냄에 있어서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작가의 괴로움에 대한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답피하기 : ①글의 마지막 부분 ‘어째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에서 특히 이러한 영탄조의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글쓴이는 2문단에서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바로 이어서 자신이 대답하고 있다. ③‘우주를 자적하면 --우주는 슬픈 속이었다.’, ‘시를 읊을 --물이 있으니’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 오늘 밤엔 멋이다.’는 문장에서는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⑤ ‘--하더라, 되는구나, 있다 하라, --이라, 삼노라’의 서술어에서 예스러운 말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위전변, 자적, 회의, 속, 아, 일상, 서’ 등의 한자어가 곁들여져 고풍스런 느낌을 주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필자의 의도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작가가 행복으로 여기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가을의 분위기를 느끼며 네 활개를 펴고 잠든 모습이나 자적하면 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음의 흐름대로 따르는 것(③)을, 글의 뒷부분 ‘한 바리 밥과 -- 복이 족하지 않은가.’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②)을, ‘시를 읊을 동쪽 -- 허물할 이가 누군가.’에서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⑤)을, 마지막 문장의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에서 세상 이치를 알아 가는 것(④)을 행복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41.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B에서 말하는 ‘허다영재’란 선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기 수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A에서 ‘허물이나 업고자’ 하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신의 삶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B의 ‘허다영재’는 이러한 A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다. ‘현학적(衞學的)’이란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잘난 체하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오답피하기 : ①A의 초장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에 ‘연하’와 ‘풍월’은 향유 대상이다. D에서 화자는 ‘청산’과 ‘유수’처럼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겠다고 했다. 즉, 언제나 푸른 산과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학문을 수양하고 인격을 닦겠다는 것이기에 이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이다. ③C의 구절은 책을 읽으며 사는 삶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E는 학문을 하며 살다 보니 늙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기에 상통하는 면이 있다. ④D의 ‘그치지 말아’의 대상은

학문 수양과 인격 도야이다. 그러므로 C에서 ‘만권생애’의 학문 수양과 관련이 있다. ⑤B에서 말한 것처럼 ‘어진 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E에서 말한 ‘우부’ 즉, 어리석은(평범한) 사람들마저도 자기수양이 가능한 것이다.

42. 추론적 사고(다른 작품에의 적용)

정답해설 : A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삶은 소박 할지라도 이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⑤의 누항사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삶에 치이는 화자의 삶이 나타나 있다. 비록 이러한 가난 속에서도 충심은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삶에 자족하기보다는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43.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및 적용)

정답해설 : ㉠의 ‘대중이 없다.’는 뚜렷이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좌지우지하다’는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주도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에 이와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의 단어들은 ‘뚜렷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에 ㉠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보인다.

[44-47] 언어, ‘문자 발달사에 따른 문자의 장단점과 한글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문자 발달사에 따른 각 문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자들이 지닌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글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문자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한글의 문자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 있다. 글쓴이는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과 구체적 예시, 비교·대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44.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음절 문자나 음운 문자는 모두 표음 문자에 속한다. 표음 문자는 글자의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기호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음절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의 가나가 있으며, 음운 문자는 자, 모음으로 분리되는 영어나 한글이 있다.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음절 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절 문자보다 음운 문자의 글자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그림 문자는 대상을 직접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표음 문자는 추상화된 기호에 의미를 결합시킨 사회적인 약속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표음 문자가 그림 문자보다 더 발달된 문자라 할 수 있다. ③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한글은 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 음절 문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다고 했다. ④4문단 전반부에서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는 글자의

음을 주로 이용한다고 했다. ⑤3문단 첫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5.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한글은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적 특징을 가진다고 했다(ㄱ). 그리고 4문단에서 한자는 문자 분류상으로는 표의 문자이지만,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음만 이용하는 음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ㄴ). 한글 또한 음운 문자이면서도 문자 운용에 있어서는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정점을 가진다(ㄷ). 이것이 바로 같은 음운 문자인 영어 알파벳과 다른 한글만의 장점인 것이다.

46. 창의적 사고(사고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한글은 음운 문자에 속하면서도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질 문자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보기이다. ④에 보기로 제시된 한자는 자형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이것이 문자 전체에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글자가 자질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에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한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 ①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ㄱ, ㅌ’은 ‘ㄱ, ㄷ’에 가획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닮았다. ②2문단 6-7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 글자와 가획 글자의 발음 위치는 같다. ③2문단 7-8행에서 가획을 통해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낸다고 했다. ⑤2문단 4-6행에서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질 ‘문자’를 설정한다고 했다.

47. 창의적 사고(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은 3개이다. 첫째 음운 문자,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 셋째 모아쓰기이다. 첫째 음운 문자는 표음 문자 중의 하나이기에 글자가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호로 표시되면서도 자, 모음으로 나뉘는 것이어야 한다. (③,④,⑤) 하지만 ‘도토리’에서 ‘도’와 ‘토’의 모음은 같기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은 ③ 하나뿐이다. 둘째 자질 문자의 특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도토리’에서 ‘ㄷ’과 ‘ㅌ’의 연관성처럼 새로운 문자에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야 한다.(③,④) 셋째 모아쓰기는 도토리과 같이 세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③,④,⑤)

오답피하기 : ①,②자, 모음의 분리가 없기에 모아쓰기도 하지 않았으며, 자질 문자의 특성도 확인할 수 없다. ④음운 문자, 자질 문자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모아쓰기도 하였으나 모음의 표기가 잘못 되었다. ⑤음운 문자, 모아쓰기만이 반영되었다.

[48-51] 예술, ‘판소리 문학에서의 이면을 그리기’

지문해설 : 이 글은 판소리 문학에서의 ‘이면을 그리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판소리에서 사실 내용의 해석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들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내리고 있다.

4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이면을 그린다’이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러한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개념에 대한 규정과 의미 파악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이면이란 무엇이냐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통시적’이란 시간의 순서대로 대상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글이 진행되면서 이면을 그린다는 의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통시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파하기 : ①2문단에서 ‘이면을 그린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며, 4문단에서 사실 내용에 대한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진 후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②처음 시작에 있어 춘향가라는 예를 통해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③3-4문단에서 판소리의 사실 내용을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유동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이러한 대비 과정에서 각 관점이 지닌 장, 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49. 추론적 사고(글의 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이면의 의미에 대해 2문단의 3행에서 먼저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이라 했다. 즉, 이면이란 ‘사실의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러한 의미적 측면 말고도 분위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면을 적절하게 소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이면의 내용으로는 ‘창자가 소리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이라는 규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50.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판소리의 창자가 이면을 잘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왜냐 하면 일단 이면을 잘 파악해 내기 위해서는 창자가 사실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④), 이러한 내용과 분위기까지 소리로 전달을 해야 하고(③), 또한 전달 과정에서 음악적 표현을 내용에 딱 맞도록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어울려서 소리로 나왔을 때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①). 하지만 독창적 창법의 개발 자체가 이면을 잘 그렸다는 평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51.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는 ‘소리’라는 어휘가 특히 많이 나온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리는 대부분 ‘판소리나 잡가 등의 옛노래’. 또는 ‘노래’를 달리 일컫는 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㉔에서의 ‘소리’는 사전에서의 중심적 의미인 ‘귀에 들리는 공기나 물체의 빠른 진동’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52-55] 인문, ‘느낌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

지문해설 : 이 글은 개인이 느끼는 아픔과 같은 ‘느낌’이 과연 정확하게 관찰될 수 있고, 개인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기에, 다양한 가설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52. 비판적 사고(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라)에서는 (다)에서 말한 고전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느낌 자체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두뇌 속 뉴런의 발화를 통해 인간의 심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느낀 ‘느낌’이 다른 사람의 경우와 똑같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지는 못한다. 결국 이 방법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④에서 ‘해결될 수 있음’이라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내가 손가락을 베인 경험을 토대로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②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는 전제 하에서, 내가 느낀 아픔이 상대방이 느낀 아픔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를 하고 있다. ③말이나 행동의 동일성이 느낌의 동일성을 보장한다는 고전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이는 하나의 사례로 판단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⑤일부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해결책을 소개했으나 이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53.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기에서 A가 영화가 슬프다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B는 자신도 슬픔을 느끼지만 A가 느낀 감정과 B가 느낀 감정이 같은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B의 이러한 반응이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B는 자신의 감정은 직접 느끼고 관찰할 수 있으나, A의 감정은 ‘울음’이라는 행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슬픔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바로 이 글의 핵심인 것이다.

54. 추론적 사고(논증의 전개 방식 이해)

정답해설 : ㉠은 하나의 사례인 개인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내가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서 하나의 상자만 열어 보고 다른 상자에도 똑같이 책이 있다고 추리하는 것 역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이번에 수소를 낳았다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암소나 수소를 낳을 확률이 반반씩인 것이다. 즉,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데 마치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해석하는 원인 오관의 오류이다. ㉣‘훌륭한 인재’와 ‘화목한 가정 꾸리기’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인데,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맞는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틀리다고 했으므로 흑백 논리의 오류이다. ㉥결론이 반증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결론이 증명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55. 어휘, 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의 ‘치다’는 ‘인정하거나 가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가정하고 그만 화해하자.’의 ㉣번이다.

오답피하기 : ㉡,㉢‘계산에 넣다’ ㉣‘값을 매기다’ ㉤‘따지다’

[56-60] 현대소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작품해설 : 1936년에 발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의 단편 소설로서, 떠돌이 인생의 비애를 그려내고 있다. 시적 정서가 향토적 배경과 토속적인 언어와 함께 산뜻하고도 애뜻하게 흐르는 소설이다. 작가는 이 작품의 목적을 허 생원이나 동이의 인생에 대한 것보다 숨 막힐 듯한 메밀꽃이 피는 달밤의 정경을 나타내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 선달, 허 생원, 동이 등은 인격체로서의 소설적 인물이 아니라, 당나귀와 같은 자연의 일부로서의 사물의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줄거리 자체보다는 작품의 분위기와 서정성을 중시한 시적 수필로 평가받고 있다.

56.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허 생원이 평생에 인연이 없다고 말한 것은 (다)에서 제시되고 있는 젊은 날의 ‘단 한 번의 인연’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그렇기에 허 생원에게 이러한 단 한 번의 추억은 의미 있는 것이고, 이를 생각할 때면 그도 산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가)에서 서술자는 허 생원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며 어디어디 돌아다닌다는 내용과 허 생원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평은 제

시되지 않았다. ③허 생원의 단 한 번의 추억은 현재 혼자 있음으로 인해 더욱더 그리움의 대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오늘 밤도 또’ 그 추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흠뻑 빠진다는 것이며, 그때의 감정을 또 느끼는 과정이기에 대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이로 인해 허 생원과 조 선달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조 선달은 허 생원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 싫증이 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장면의 행동이나 대화에서 갈등의 상황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④(라)에서 과거 상황과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장치는 ‘메밀꽃과 달밤’의 분위기이다. ⑤(마)에서 조 선달은 현재의 장돌뱅이 생활을 빨리 접고 정착의 삶을 살려 생각하고 있지만, 허 생원은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생활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 오히려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라는 말에서 추억에의 회상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57. 추론적 사고(공간적 배경의 파악)

정답해설 : 허 생원은 반평생을 떠돌며 장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봉평 장을 빼 놓은 적은 드물다고 했다. 왜냐 하면 허 생원은 평생 인연이 없는 듯 살아왔지만 봉평은 젊은 날 단 한 번의 인연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봉평은 허 생원의 마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ㄱ). 또한 허 생원의 삶은 비록 가난하고 쓸쓸하지만 젊은 날의 추억을 생각할 때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렇기에 달밤에 길을 걷고 있다 해도 허 생원은 젊은 날의 추억이 있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다(ㄴ).

오답피하기 : ㄴ에서 말하는 무섭고도 기막힌 이야기는 허 생원이 젊었을 때 실제 체험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상상의 산물이 아니다. ㄷ에서 첫문장의 진술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허 생원에게 봉평은 반성의 공간이 아니라 젊은 날의 단 한 번의 인연이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58. 창의적 사고(표현 효과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A에 제시된 부분은 한국 소설 중에서 가장 묘사가 잘 된 부분으로 흔히 지칭되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를 동원하여 묘사한 밤길의 서정적이면서도 낭만적 분위기가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초청장을 만들었다면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59. 추론적 사고(구성 요소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장돌뱅이들이 다음 장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 둘에 개울 하나,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아직 가게를 얻을 형편이 못 되기에 장돌이를 하는 것이고, 자야 할 시간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밤길은 현실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밤길의 묘사는

낭만성이 두드러질 정도로 분위기 있게 묘사되었으며, 이러한 달밤의 분위기가 허생원을 과거 그날 밤의 추억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허생원에게 ‘밤길’은 오히려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장에서 장으로 걷는 길은 바로 장돌뱅이 허생원의 삶의 공간이다. ④허생원과 조선달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동이가 배제되다 보니,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개울가의 극적인 장면(허생원과 동이의 대화 장면)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⑤허생원은 처녀를 만나지 않는 한, 이 길을 걸으며 과거의 추억에 빠져드는 현재처럼, 계속 이러한 삶을 미래에도 지속할 것임을 알 수 있다.

60. 어휘, 어법(조사, 어미의 구분 및 적용)

정답해설 : ㉔의 ‘는’은 ‘용언의 어간에 붙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의 ‘는’은 ‘받침 없는 말에 두루 붙어, 가름(구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